

시흥소방서-과림의소대, 울진 산불 피해지역 구호물품 전달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한 봉사활동에 팔 걷어붙여

기사입력시간 : 2022/03/29 [13:00:00]

정현희 기자



[FPN 정현희 기자] = 시흥소방서(서장 한선) 과림의용소방대(대장 정유자)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울진군 피해지역을 찾아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주민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정유자 대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들은 산불로 고통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구호물품을 준비했다.

특히 울진군 고목1리와 고목3리 지역이 산불 피해가 심하고 노령인구가 많아 현장 복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의용소방대는 마을 이장들과 연락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물품 보급 의사를 전달했고 피해 주민들이 조만간 입주하게 될 임시생활시설에 각종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약 250만원 상당의 쌀, 그릇, 수건 등 구호물품을 마련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구호 물품 전달과 함께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와 아픔을 나눴고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구석구석 살폈다.



피해 현장을 둘러본 대원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화마에 그을린 현장이 그대로 있는 등 피해 상황에 가슴이 뭉클하고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선 서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구호물품 지원 등 자발적으로 피해복구 지원에 참여해준 과림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